

상록원 개선공사 개강일 '턱걸이'

만해관·학림관 공사 지연 ... 연구실입주, 강의차질 염려

상록원 1·2층 학생식당이 방학 중 내부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생명화학공학, 이하 생협)은 지난 6월 20일 방학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된 상록원 구조개선으로 내부시설 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형태와 업종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협직영매장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임대매장과 직영매장이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변했다. 상록원 1층 학생식당은 생협에서 직영하는 종합분식점, 임대매장으로 스몰·파스타 전문점 △버거킹 △푸레주르, 2층 학생식당은 △한식 △일품요리 △떡볶이 △양식 메뉴가 생협 직영 푸드코트형 단체급식으로 운영된다. 3층 교직원식당은 임대업체인 한화리조트가 한·중·일식 메뉴를 제공한다.

1층 학생식당 생협 직영 종합분식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즉 메뉴를

추가로 제공하며, 기존 메뉴 가격 변동은 없다.

2층 학생식당은 저가 메뉴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가격대에 1800원 저가 가격메뉴를 추가로 제공한다.

상록원 구조개선공사는 당초 지난 달 26일 공사를 완료해 입주기간 시범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공사 일정이 늦어져 지난 1일에 학생식당에 한해 시범 운영했다.

공사일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록원 매장을 지난 달 30일 임시오픈하고, 이용자가 많은 학생식당을 우선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3층 교직원식당 공사 인력까지 1·2층 학생식당 공사에 투입해 식당 운영을 개강일에 맞췄다. 3층 교직원식당은 오는 10일 공사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정상영업 할 예정이다.

한편, 만해관 연구동, 학림관, 학술문화관, 동국관도 방중 내·외부

공사를 시행했다. 만해관 연구동은 △각 실별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및 천정교체 △외벽 이미지 개선 △보안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달 교육환경개선에 이은 학림관 공사는 △각 실별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외벽 이미지 개선 △강의실 환경개선 등의 공사가 시행되며 2층에 위치한 교수연구실이 5층으로 이동하고 5층에 있던 학생회실이 2층으로 재배치된다.

학술문화관 증축공사는 당초 지난 달 26일 완공 예정이었지만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한 달 가량 중단됐고 장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동국관과 함께 10월 말경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교수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수업준비와 연구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학림관 교수연구

실은 지난달 30일 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강의실 공사는 2일까지 철야작업을 통해 개강일 강의가 이뤄질 수 있게 공사일정을 맞췄다.

강택구(역사교육)교수는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업준비가 더욱 문제다. 개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은 책을 보고 강의준비를 해야 하는데 책이 모두 짐으로 묶여있어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캠퍼스기획단 김용석 과장은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비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늦어져 전반적인 일정이 늦어졌지만 개강 수업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외벽공사와 주변정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imisonaral@dongguk.edu



"지금은 공사중" ... 개강을 3일 앞둔 지난 달 31일 공사중인 학림관의 외관 모습. 학림관 내부공사는 현재 90% 이상 완료됐으며 외관공사는 9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성과평가제도' 국내대학으로 첫 도입

'연구다양성 배제'로 교수회는 거부

개개인의 성과가 보수 및 인사제도에 반영되는 성과평가시스템이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우리학교에 도입된다.

경영평가팀(팀장=김승용·경영학)은 이번 성과평가시스템은 △전체대학과 단과대학 경영활동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 △성과평가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각종 대외평가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분권화를 통한 단과대학 중심의 경영시스템 지원 등의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 기간마다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달성하는 만큼 등급을 부여해 성과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로 시행되며, △공공지표 △자체지표 △별도지표로 나눠 각종 연구실적 및 기여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지난 달 27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서울·경주 합동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수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교 총장은 "다른 학교보다 몇 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놓고 누가 얼마나 달성하는지를 측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를 지적하며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총장의 설명이후 성과평가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으나 교수들 가운데 아무도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아 실질적인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교수회(회장=이종욱·경영정보학)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21일 소피텔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07년도 정기교수총회에서 제2안건으로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교수회는 △17개의 공통지표로만 교원업적을 평가하는 교원업적평가의 왜곡 △4개 지표로만 한정된 연구업적의 획일화와 따른 다양성 배제 △미래를 담

보하지 못한 성과평가시스템의 불확실성 △학교의 진정한 발전이 아닌 혁신의 도구로써만 진행되는 성과평가시스템의 조급성 등을 이유로 개선사항이 없는 성과평가시스템은 거부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성과평가시스템의 개인성과지표계약에 대한 참여 여부 및 모든 법적권한을 교수회에 위임함을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학교당국은 오늘(3일) 오후 4시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성과평가시스템과 관련해 의견수렴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교무위원, 학장, 부학장 및 주임교수 등이 참석하며 성과평가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교수회에 제출된 위임장은 전체 교수의 65%를 넘었으며, 학교 측은 오는 7일까지 성과평가시스템의 개인성과지표계약을 완료하기로 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전순표 제 24대 총동창회장에 취임

㈜세스코 전순표(농학57졸) 회장이 지난 달 23일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 2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동국인은 하나"를 선창하며 동문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또한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앞으로 기금모금 캠페인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전순표 회장은 우리학교 농학과를 1957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1976년 세스코의 전신인 전우방제를 설립해 현재 (주)세스코 회장직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2면

3년 연속 수도권 특성화사업 선정

우리학교가 지난 7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도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올해 26억 5천만원의 지원받는다.

총무로 영상문화사업단(단장=이종대, 문화콘텐츠학)의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에 22억, 통합

인문학특성화사업단(단장=유홍우, 철학)의 '통합 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에 4억 5천만원의 이번 사업을 통해 각각 지원받는다.

또, 2008년에도 동일한 과제에 대해 올해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총 지원액은 50 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원 학력 재검증 결정

지난달 17일 열린 제 230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전교원의 학력을 재검증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신청자 전 교수 사건과 같은 학력위조 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협의회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 하는 등 정관 변경이 이뤄졌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경주캠퍼스 진입로 부지 중 4명이 도로공사구역에 포함돼 국가에 매각 처분된 것이다.

한편 24일 열린 제 231차 이사회에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중 법인 이사회 대표 3인 선출 △교원 신규채용 및 교원의 승진, 재임용, 면직에 관한 안건 △경주캠퍼스의 에너지 기술(ET) 특성화 센터 건립이 승인됐다.

보직인사 단행

본교 보직인사가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행정(외무)고시반 지도교수=최승렬(경찰행정학)(이상 6월 1일자) △전략홍보실장=김봉현(광고홍보학)(이상 7월 16일자)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실장 겸 총무학사관장=황순일(인도철학)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장=유홍우(철학)(이상 8월 1일자)

新학생증 발급 연기

2학기 개강과 동시에 발급되기로 한 T-Money카드 기능과 기존의 학생증 기능이 통합된 학생증 발급이 2008학년도로 연기됐다. 지난 6월 1일 학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확정되면서 소속대학이나 학과 명칭이 달라진 경우가 있어 학제개편이 시행되는 2008학년도에 함께 교체하기로 했다.

중앙도서관, 도서대출한도 대폭 확대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의 대출제도가 변경돼 예약 권수가 늘어나는 등 도서 대출의 폭이 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서대출 제도는 대출가능 권수 및 예약 가능 권수의 확대와 대출 도서 연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변경된 대출 가능 권수는 학부생과 휴학생 7권, 교수 40권, 직원 및 강사는 15권이며 군 휴학생 및 졸업생은 현재와 같다.

또한 예약가능 서적이 1권에서 3권으로 늘어난다. 예약대기일은 문자 발송일 포함 3일로 줄어들며 예약 대기일 내에 대출하지 않을 시

차순위 학생에게 넘어가고 예약 후 2회 미대출 시 60일 동안 예약할 수 없다.

단, 예약 당시에 예약 유효일을 설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예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출 도서 연기제 또한 새로 시행된다. 연체중인 도서가 없고 연기하고자 하는 도서가 예약되지 않을 경우에만 △학부생과 휴학생은 1회 한도 5일 △교수 30일 △직원 및 강사 10일 △군휴학생 및 졸업생은 5일이다. 대출 도서 연기는 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의 도서대출/예약에서 가능하다.

본사사령

◇ 임기만료

- ▲ 편집장 = 강지혜(문과대 중문3)
- ▲ 대학부장 = 이주현(이과대 수학3)
- ▲ 문화부장 = 정은미(문과대 국문3)

◇ 신임 부장

- ▲ 편집장 = 이윤재(공과대 전기공2)
- ▲ 대학 제1부장 = 선담은(사과대 정외2)
- ▲ 대학 제2부장 = 김나리(경영대 회계2)
- ▲ 기획부장 = 최미혜(경영대 경영2)
- ▲ 문화 제1부장 = 문서영(사과대 정외2)
- ▲ 문화 제2부장 = 이승이(공과대 전기공2)

◇ 임 정기자

- ▲ 정동훈(사과대1)
- ▲ 윤혜경(공과대 기계공1)

- 이상 9월 3일자

'申 폭풍'이 지나간 자리

관련지면 2면 보도면
- '신정아 파문' 정치적 이용 '우려'

3면 기획면
- 신정아가 남긴 과제 '학위검증'
- '신정아 사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진출처 = 부산일보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수시지원 1학년 재학생
원시접수 9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전시면담 9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
원시면담 SC세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인문 교육기금 무료 수강
* 보호자 직할 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신정아 파문’ 정치적 이용 ‘우려’

오총장 “‘아님 말고 식’ 언론에 법적 대응” 밝혀

우리학교 신정아(교양교육원) 전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이 정계위원회 파면결정으로 일단락 된 듯했으나 정치권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학내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제기부터 파면까지

지난 7월 4일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선임됐던 신 씨의 학력위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학교는 11일 신 씨의 예일대 박사학위와 캔자스대 학·석사 학위가 모두 가짜였음을 공식 발표했다. 학교 당국은 이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한진수·회계학)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7월 20일 ‘신정아 교수의 허위학력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홍기삼 전 총장의 무리하고도 지나치게 의혹

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의압이나 금품에 의한 청탁 비리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교내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자들에게 교내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자들에게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와 신뢰성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학교 측은 이어 7월 23일 서울 서부지검에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 씨를 고소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위원장=영답스님)는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신 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씨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미 7월 16일 미국으로 잠적한 신 씨가 불참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8월 3일 최종 파면조

치했다. **끝나지 않은 외압의혹**

한편, 일단락 된 듯 보였던 신 씨의 학력위조 논란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권 외압관련설 제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잇따른 보도는 청와대 변양군 정책실장이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점차 정치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다. 신 씨의 학위 위조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장운스님은 현재 청와대 변 실장으로부터의 압력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는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오영교 총장은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들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 보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자들에게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오 총장은 교수회의 신 씨 사표 반려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사표 원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원·경주 캠퍼스의 887명 모든 교원의 학력을 자체 검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력검증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장운스님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 참고인 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 한편 홍기삼 전 총장, 신정아 씨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신정아 학력위조 관련 사건 일지

- ▲2005. 9. 1 신정아 우리학교 조교수로 특채 임용
- ▲2005. 10 법인으로 부터 휴직 승인 및 소속변경(대학원 미술사학과→교양교육원)
- ▲2007. 2 장운스님 신 씨의 학력위조 의혹 이사회에 공식 제기.
- ▲5. 29 이사회에서 장운스님 해임
- ▲6. 5 경영관리실, 신 씨 허위학력에 대한 비공식 제보 접수
- ▲6. 11 예일대 대학원에 학력조회 의뢰. 박사학위 취득 명단에 없다는 회신 확인
- ▲6. 25 신씨 우리학교에 사표 제출
- ▲7. 4 우리학교 공개 진상조사 결정
- ▲7. 6 예일대 총장에게 신 씨 학위 진위 확인 요청.
- ▲7. 10 예일대로부터 회신 도착. 신 씨 예일대 등록 사실 없음. 학위증명 확인서 예일대 서식이 아님을 확인.
- ▲7. 20 우리학교 진상조사위원회 공식발표
- ▲7. 23 우리학교 검찰에 신 씨 고소조치
- ▲7. 27 제 1차 징계위원회.
- ▲8. 3 제 2차 징계위원회. 파면 결정.
- ▲8. 17 전 교원 학위 검증 계획 검증을 이사회에서 결의
- ▲8. 27 신 씨 비호의혹 관련, 오영교 총장 긴급 기자회견

한전부터

이게 필수값이?

○...소급하기 소급하기 쇼는쇼. 소급하기 소급하기 소급하기 쇼는쇼.

열놈중 다섯 놈은 영어강의 듣는다. 그러나 안들린다.

무조건 들어라. 그러면 들리지어니. 쇼틀라라 쇼.

보고싶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끝나 개강 후에 리모텔링 공사들이 겹모습 바꾸려는 실속없는 공사들이 짜증만 주는 공사 왜 모르고 방학동안 내놨냐는 말야 보고싶다 보고싶다 내일있는 동국대를 보고싶다 안내 데스크 아닌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친절들

진실혹은망연

○...장동진 망연 : 솔직히 한 번도 내가 잘 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다. 강동원 망연 : 모니터를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학력위조자들 망연 :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거다. 다닌 것은 맞으나 청강생이었다. 다녔으나 졸업유턴 못한 것 뿐이다.

이율(利率)배반

○...등록금 인상률 7프로 학생들 인상은 저평가된 학자금 연이율 6프로 부모님 허리는 구부러. 믿던 학자금 대출에 발등이 짝히고 친구라던 대부업체에 신용불량 낙인이 찍히고 나의 젊은 날은 그렇게 간다.

지난 24일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 달 200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4일 본관 중앙강당에서 열렸다. 이사장 영배스님과 오영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총장식사 △의사장지사 △총동창회장 축하 라בל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발전이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감격스럽습니다” ... 지난 달 29일 달리아 라미의 제수이자 티벳의 대표적 여성 지도자인 린첸칸다가 불교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사진은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의 귀중본실에서 티벳 대장경 라사판을 보는 모습.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전순표 신임 총동창회장 인터뷰

“임원위주 아닌 회원중심 동창회 만들 것”

개인재산 6억원 출연 ...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에 중점 돌 터

지난 달 23일 엠베서더에서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전순표(농학57졸) 회장이 제24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전순표 신임총동창회장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은.

=우선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또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동문들을 하나의 뜻으로 모아야 한다는 임무도 있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진다. 동창회도 학교, 재단과 마찬가지로 학교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동문과 학교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기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돌 사업은 무엇인가.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동문회합과 동창회관 건립이다. 이를 위해서 동창회의 운영을 대폭 바꿔 임원중심의 운영에서 회원중심의 운영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

해 회원이 원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회원들이 회비를 내도록 하겠다. 회원들이 원하는 마케팅을 펼친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문들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기부는 학교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 동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동문이 기부할 하면 동창회관에 기부액수 별 등급을 나눠 동판 또는 흉상을 세워 동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동창회장으로서 회관건립을 위해 6억원을 출연하겠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동문들의 기부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취임식에서 동문 화합을 강조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따를 것이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인가.

=취임 전에 여러 단체를 직접 만나 마음을 한데 뭉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단체들이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고, 학교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장으로써 활동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취임식에서 다함께 기립해 ‘동국인은 하나다’를 외쳤던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더불어 우리 회사의 문화인 창찬 문화, 웃음문화, 존경문화를 동창회에 도입하려고 한다. 권위적인 운영을 피하고 동문 간에 서로 정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동창회장으로서 동문들과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동국대학교를 나온 이상 우리는 무덤에 갈 때까지 동국인이다. 우리 모두는 동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야하고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재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전공분야를 깊게 공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게 대학 생활에 열정을 쏟는다면 평생에 승



승장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문들은 비판적으로만 학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발전이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동약로에서

수강권 매매 ‘유감’

‘딱딱!’ 확인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어렵사리 로그인에 성공해 화면을 조회해 보지만 남은 인원은 ‘0’.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자리가 생길길 기다리거나 다음을 기약하는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인 상황을 이번 수강신청 기사관련 사진 조사를 하던 중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모 사이트 게시판의 ‘○○수업 판매 합니다’라는 글이다. 이 글은 “이 수업을 사고 싶다면 가격을 조정해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는 수업매매에 관련한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모두 수강신청이 끝나고 난 뒤 게시판을 훑어볼 수 있는 시점에서, 결국 이들이 진짜 수업을 사고팔았는지, 얼마에 거래가 된 것인지, 그들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다.

어쩌다가 학생들이 수업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처럼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른 것인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욱 놀랐던 점은 인터넷 상에서 그러한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만큼이나 이러한 행동이 문체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장우(경제2) 군은 “수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미 수업에 붙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없는 학생들은 수업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수업이 결국 거래가 되지 않았더라도 품돈에 거래가 되었다한들 이는 분명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사회의 세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취업을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을

학점에 연연하게 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기 강좌의 몸값이 치솟을지도 모를 일이고 더 나아가 학점을 돈으로 사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학교는 ‘학문의 쇼팽몰’이 될지도 모른다.

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요와 강좌개수 확보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본연의 자질이다. 혹자는 ‘학문의 상아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점이 아닌 학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지성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70대 할머니 불자, 시신과 유산 기증 미담

73세의 독실한 불교신자인 한 할머니가 우리학교 경주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고 유산 3천만원을 기부했다.

우리학교 경주 병원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해 1월 우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부시신기증운동 사업 소식을 듣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서원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찾아 시신 기증 유언서와 함께 가족 동의서까지 접수했다. 1년 후인 지난 7월 21일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아들, 딸 등 가족들은 모친의 마

음을 받들어 시신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할머니의 유산 3천만원도 함께 의학연구기금으로 써달라며 학교에 기부했다.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할머니와 학교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면서 “할머니의 시신 기증과 가족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은 동국 찾기

자동차 미로?!

사람 수 > 자동차 수
사람 통행권 < 자동차 주차권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글쓰기센터 3일 개소

우리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가 오늘(3일) 개소한다. 글쓰기센터는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신입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교양과목 리포트를 작성할 때 글쓰기센터의 상담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 오는 10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프로그램은 △일반상담프로그램 △당일 방문상담프로그램 △이메일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당일방문상담프로그램은 간단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고 일반상담프로그램과 이메일 상담프로그램은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자세한 점사를 받을 수 있다.



신정아가 남긴 과제 '학위검증'

해외학위 검증제도 보완 절실 ... 대책마련 고심

학력위조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전 교수 사건을 계기로 대학들의 교원 학위검증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대, 연세대 등 상당수의 대학들이 그동안 신규교원 임용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왔지만 그 진위 여부를 따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학력검증의 문제가 우리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대책 마련에 나선 대학들

연세대의 경우 앞으로 신규교원 임용 시 3단계에 걸쳐 교원의 학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채용 학과의 교수들이 인력풀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대학 도서관을 통해 논문의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신 대학에 서면으로 학력조사를 의뢰해 처음부터 가짜 학위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대, 이화여대 등도 앞으로 교원의 학위를 검증하는 데 있어 직접 해당 학교에 학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887명 전 교원의 학위를 재검증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학위증명서 원본을 바탕으로 국내대학의 학위는 학력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외국 대학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미국 소재 약 2000여개 대학의 학위는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하우스(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라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www.nslc.org)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외 1000여 개의 대학과 유럽 소재 대학은 직접 서신을 보내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학위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교무팀 김영수 과장은 "2002학년도까지 임용된 교원의 경우 학위를 수여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왔으나, 2003학년도 이후 신규임용 교원 수가 늘어나면서 학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학위검증의 제도화 노력

한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7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 후 6개월 내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의무 외에 그것을 검증할만한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위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달 1일부터 교수 임용 후보자의 학위 검증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및 기업으로부터 외국 학위의 검증을 요청받으면 외국 단체를 통해 검증을 대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 내에 '학력검증추진단'을 설치하고, 향후 전문기관인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차원의 학력검증 기구 설립은 학력위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들이 직접 해외대학의 학위를 확인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학생들이 바라본 신정아 사건

'신정아 사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속한 진상 규명, 대책방안 마련 미흡하다

총학생회장 이번 신씨의 학력위조사건은 원칙 없는 학사행정이 재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증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학교는 서둘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문책, 대국민사과와 신속한 재발 방지책의 수립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커진 뒤 재단 이사회와 학교 당국 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신씨를 파면조치 하는 모

습은 서로 책임회피에 따른 미봉책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전 교원에 대한 자격 재검증을 끝마쳐 혹시라도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제 2의 신씨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학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신씨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 대한 일차적 보상으로써 해당 강좌의 선택적 학점포기와 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



정형주 총학생회장(통계4)

점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추가학점 수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측에 요구할 생각이다.

"수강생으로서 '교수님' 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신정아 수업 수강생 지난 해 2학기 들었던 신정아 전 교수의 '시각예술과 시각문화'는 흥미로운 수업으로 기억한다. 신 전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으로 비쳐졌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학생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직접 찾아다니게끔 만들 정도로 충실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학력위조 사실을 알고 신정아 전 교수에 대해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다. 교수와 학생은 단순히 지식전달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신 전 교수를 강력히 처벌해 다른 교수들뿐만 아니라 교수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가 끝나면 신 전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적법성을 준수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



오윤석(경영2)

들에게는 단순한 학점 보상이 아닌 당시 그 강좌를 선택하면서 생긴 기회비용까지도 보상해야 한다.

학교 행정은 학생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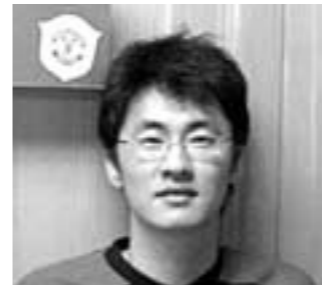
입장에서 고려하고 결정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제공방법에 대해 제대로 일처리를 못했다. 이는 점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다. 또한 사건이 터진 후 잘못 숨기기에 급급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

지난 2002년에 입학한 당시부터 교수,

재단, 학교 행정 등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적이 많아 안타깝다. 학교의 이미지 실추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취업을 앞둔 졸업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단을 비롯해 학교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학교의 본질이 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충희(정외3)

재학생 학교 행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사행정을 학생들의

학벌위주 사회의 자화상

때 마다 졸업생으로서 씁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내에서 교수임용에 있어 학위검증이나 제대로 못한 학교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 만약 인사이동과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유가 어떻든 모교의 이미지 실추의 영향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사건의 잘못은 1차적으로 학력을 위조한 신 씨이고 2차적으로 거짓학위를 검

증하지도 않은 채 교수로 임용한 학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학벌위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학력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결국 사람의 능력보다는 보여지는 학력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사회가 신씨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리 =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정원현(정보통신공 07졸)

졸업생 각종 모임에서 직장동료, 가족, 친척들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학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볼

퇴임교수 인터뷰

당신이 바로 동국입니다

농사짓는 수학자, 자연인 되다

18세기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모든 자연 현상은 그저 적은 수의 법칙에서 나온 수학적 결과일 뿐이다”라고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자연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돌보기’는 다름 아닌 수(數)이다. 수학과 자연, 언뜻 보기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편견에 불과함을 농사짓는 수학자 이종훈(수학) 교수는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수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수학은 변화의 구조를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한 평생 대상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수학자의 길을 걸으며 그가 무질서 속 질서를 유지하며 변화하는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도 모른다.

젊은 시절부터 동식물을 좋아했다는 그는 20여 년 전 강원도 치악산에 땅을 사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비가 오면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우는 등 갖은일을 하면서도 마음만은 즐겁다고 말하는 이 교수.

“퇴임을 하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농장을 돌볼 수 있게 됐다”며 미소 짓는 그의 표정에서 ‘자연인’의 푸른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평소 학생들에게 ‘F 폭격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소위 ‘학점을 짜게 주는 교수’이기 때문에 생긴 훈장이다. 이에 대해 그는 “충분히 수업 내용을 이해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공부할 게울리 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다”며 젊은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요행만을 바라는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퇴임을 하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

김보환(경찰행정학) 교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못해 간단한 약력을 소개합니다.



이 종 춘 교수
(이과대 수학과)

는 청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정을 갖고 살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울 가을 부인과 함께 에베레스트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이 교수, 자연과 함께하는 한 그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답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이 민 웅 교수
(이과대 생명과학과)

“아직도 산을 다니면서 유용한 약재를 발견할 때면 마음이 설렌다.” 퇴임을 앞둔 이민웅(생명과학) 교수의 얼굴에서 새내기 연구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다. 선배의 퇴임교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자가 엇그제 같은데 자신의 퇴임 인터뷰가 믿기지 않는다는 이 교수. 학창시절과 교수로서 재직할 기간 모두 우리학교

감성과학자, 열정을 말하다

와 함께 한 긴 인연만큼이나 퇴임 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모교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한다.

자식 잘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그렇듯 제자를 생각하는 스승의 마음 역시 같기에 평소 힘든 유학길에 올라 고됨을 토로하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떠나보낸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해 박사 학위과정을 밟는다는 소식을 전해 올 때가 교수로서 가장 뿌듯하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학생들에게 ‘카드쓰기’와 같은 아날로그적 교류를 추천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고받는 카드 한통이 일상에 큰 즐거움을 주고, 주변 사람의 소중함 또한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한다. 더불어 자신의 내면 또한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식들에게까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퇴임과 함께 40년 동안 국내 및 세계적 석학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모아 책을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학자들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세상 편견을 뒤집어 얼마나 감성적이고 주옥같은 글이 오고 갔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퇴임 후에 우리와 연구교류가 부족했던 북유럽을 중심으로 연구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 교수는 힘이 닿는 한 이렇게 평생을 연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학생들이 인생의 포물선을 크게 그렸으면 합니다.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를 담금질 하는 열정적인 사람, 인생의 궤도를 넓게 그리는 ‘큰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부를 크게 갖고 끊임없이 노력 하라는 마지막 당부에서 애나자이저 이민웅 교수의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가능성 향해 도전하는 동국인 되길...

축구선수 박지성, 영화감독 심형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한가지 일에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집념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 작은 체구로 인한 약한 체력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45년간 동국과 인연을 맺어온 김상중(경영학) 교수 역시 ‘집념’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할 때도, 학생을 가르칠 때도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임했다는 김 교수는 지난 27년간의 교직생활을 묵묵히 회고한다.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으로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어. 하지만 스승으로서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집으로 경찰서로 학생들을 위해 많이 뛰어 다녔지”라며 제자사랑에서도 김 교수 특유의 ‘집념’을 보였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쉽지 않지”라는 그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싫어 그동안 학교 신문을 포함해 각종 신문사 원고청탁을 거절했을 만큼 모든 일에 심사 숙고했다. 또한 현재 위기에 처한 우리학교의 현실을 보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상기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도 신중한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도와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했기에 대학에 진학해서도 가장 자신 있는 ‘농업경제’로 전공을 택했다는 김 교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학이후에도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하지 못하는 학생들만 보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김 교수는 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5월 개교기념식에서 ‘자랑스런 동국불자상’을 받을 만큼 독실한 불자인 김 교수는 ‘회자정리’의 의미



김 상 중 교수
(경영대 경영학과)

를 되새기며 이제 정든 교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라”며 매사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서 퇴임 후에도 학문을 향한 ‘집념’은 끝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영원한 교육자로 남고 싶어

의 젊음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이자, 교수생활에 있어 커다란 활력소였다.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그는 평소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기로 유명하다. 이런 친분 덕에 지금껏 많은 제자들의 주례를 썼다고 한다. 제자 얘기를 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에게서 학생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많은 한계를 느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 많은 인재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 교육이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인 만큼 그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이 교육학을 전공한 이유도 교육행정과 교육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그는 한국교육행정학회까지 맡았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충고를 아

까지 않았다. “입시경쟁에 치우친 우리의 현 교육이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살리지 못하고 열정을 낭비하게 한다”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퇴임 후에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정 교수. 한국교육과 평생을 함께할 정 교수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김보환 교수
(사과대 경찰행정학과)

세부전공
범죄학

학위
연세대 행정

Michigan대 경찰학 석사
Cincinnati대 형사학 박사

탈수습기

부딪히고 다치면서 단단한 ‘기자’가 되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난 신문사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말이 적당할 것 같다. 신문이 된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자라는 꿈 하나로 겁도 없이 신문사 문을 연 순간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시작됐다.

출입처를 배정받고 처음으로 하는 취재에서 나는 바위의 실체를 확인했다. 낮을 잘 가리고 솜이가 없었던 나였기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취재를 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벽이었다. 취재원을 만나면 하면 얼어붙기 일쑤였기 때문에 취재내용이 좋았을 리 없었다.

기본적인 육하원칙에 준하는 정보조차 제대로 알아오지 못해서 미흡한 취재 내용으로 꾸지람을 듣고 보충취재를 해야 했다.

취재회의를 겪고 ‘이렇게 사람 앞에 서기 힘들어하는데 내게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기자라는 꿈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일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고 달라질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냈다.

‘국내 최초 불교학 영문학술지 발간’이라는 첫 기사를 맡았을 때 어떤 점을 취재할 지 어떻게 기사를 작성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영문학술지 발간에 대해 알아내려는 자세로 취재에 임했다. 또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단어를 몇 번이나 바꿔보며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고 어색하던 문단 구성도 고쳐가며 기사를 틀을 갖춰나갔다. 첫 번째 기사 작성은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더 진득하게 몰고 늘어져보는 끈기를 가지게 해줬다.

최근 가졌던 총동창회장과의 인터뷰는 일반학생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인터뷰 질문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고 알맞은 질문을 추려내면서 들뜨고 설레었던 기분이 잊혀지지 않는다.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빨리 총동창회장을 총학생회장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값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 추억은 앞으로 기자생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처음 신문사를 들어섰을 땐 ‘계란’같은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씬 없이 나를 부딪히고 끈기있게 몰고 늘어져 ‘바위’같은 정기자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해줄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동훈기자
gfd1226@dongguk.edu

“동악에서 윤혜경 기자였습니다”



나는 뻔한 영화 속 기자가 됐다는 듯이 나타나는 안전한 카타르시스에 왠지 모를 창피함을 느낀다. 그런 뻔한 인생은 내 적성이 아니었나 보다. 소위 수능시험에서 삼수라는 혹독한 경험 뒤에 시작한 내 대학생활은 ‘식스티나인’의 유패 발랄 청춘도, ‘밀줄 굵는 남자’ 속 로맨틱한 도서관 연애 역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런 반복된 생활 속에서 우연히 지나친 동대신문사 포스터를 보며 변화를 필요로 한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던 것일까. 어느새 손에 들린 입사지원서가 예고된 고난의 시작이란 것을 알지 못한 채, 합격통보에 기

쁜 마음만 가득했다.

나의 고된 신문사 생활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던 첫 취재부터 시작됐다. 기자의 시대정신을 묻는 갑작스런 한 취재원의 질문에 긴장한 내 제대로 답하지 못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알겠어?’라며 학생기자로서 알 권리를 무시조로 일관하는 일부 취재원의 태도에는 미숙한 대응으로 진땀 빼기 일쑤였다. 이렇게 기자라는 이름으로 교직원, 교수, 학생 등 다양한 취재원과 만나서 부딪히는 과정은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과 같다.

수습기간 동안 취재 후 화장실에 들어가 울먹임을 추스르곤 하던 내가 요즘은 조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어렵지만 했던 취재원과와의 장시간 인터뷰도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에 조금은 성장한 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모든 단어 속 ‘처음’의 뜻처럼 좌절과 설렘을 동시에 체험하며 보낸 수습기자로서의 한 학기는 이전 내 자신도 대견해 하는 뿌듯한 추억이다.

동대신문 기자로서 때로는 눈물 닦던 경험들도 훗날 “지리산 노고단에서 윤혜경 기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기자 윤혜경’ 으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경험이 되 줄 것이라 믿는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대 맞으면 기필코 두 대로 갚아준다’ 라는 근성이 필요하다. 요즘은 그런 근성을 지독히도 무장한 소위 ‘꼰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다. ‘꼰통’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일에 전력 매진할 줄 알고, 준비된 실력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나의 목표는 바로 ‘꼰통 윤혜경 기자’ 소리 듣기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정진환 교수
(사범대 교육학과)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들은 많지만 옛 스승들처럼 학생들을 마음으로 아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은 드물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을 되짚어 보라는 듯이 동악의 한 귀퉁이에서 20여 년간을 학생들과 호흡하며 참스승의 길을 걸어온 이가 있다. 우리학교 정진환(교육학) 교수가 바로 그 스승이다.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는 정 교수. 그에게 수업은 학생들

2007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법학과

장 경 찬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아쉬웠던 학창시절을 떠나 외부에서 배회한지 25년. 새로운 천년, 젊음과 새로운 대화 시작을 위하여 상아탑 동국대 정상에 와 주위를 무심히 살펴본다.

문득 코끼리 3마리가 다정하게 나를 응시한다. 이것은 3보(학교, 학생, 교수)가 천생연분을 갖고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학교, 학생,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광명이 비추는 남산을 향하여 함께 땀 흘리며 정진하는 것 이외 다른 그 무엇이 있겠는가, 이곳에서.

△상사법 실무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변호사

법학과

정 용 상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남산기술에 자리잡은 1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 동국의 품에서 연구의 나라를 들고 동국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내 생애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저는 상법을 전공하면서, 특히 중국법을 중심으로 아시아기업관련법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국로스코일이 중국법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법연구의 메카로 우뚝 서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동국' 상표로 우리 법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전사가 되고자 합니다. 동국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며, 동국의 영광이 제 영광인줄 확신하며 동국중흥을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동국만세! 만만세!!

△상사법 전공 △건국대학교 법학 △건국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부산외국어대 교수

법학과

최 정 일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먼저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학교당국과 총장님이하 여러 교

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열정과 이성으로써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동국대학교와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교 동국에서 각 분야의 원료가 수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저의 전공법률과목에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입니다.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와 학생여러분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은 저의 삶에 있어 소중한 만남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감을하고자 합니다.

△법제 실무 전공 △서울대학교 정치학 △BONN 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광고홍보학과

이 현 정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이현정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며 경쟁력있는 동국대학교에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role-model, 그리고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학교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자신감 있는 동국인이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광고제작 전공 △Alberta College of Art & Design Visual Communications △Pratt Institute Communication Design 석사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 박사 △HiProject Korea Creative Director

국제통상학과

이 학 노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백년 전통에 빛나는 사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국대의 일원으로서 동국대와 동국대 가족 여러분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서 저의 경험과 지식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대 화이팅!

△국제통상 전공 △서울대학교 경제학 △Texas Austin 경제학 석사·박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

산림자원학과

강 규 영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조교수



또 한사람의 동국인으로서 꿈에 그리던 따뜻한 동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뿌리깊은 나무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듯이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국의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푸르른 남산의 소나무를 바라보며 동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봅니다.

△환경생태공학 전공 △동국대학교 임학 △동국대학교 임학 석사·박사 △British Columbia대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정보통신공학과

김 용 섭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전산학의 소프트웨어 공학관련 박사학위를 한 후 삼성전자에서 핸드폰개발팀에서 일하던 중, 100년 전통의 동국대의 부름을 받아, 이번 가을학기부터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김용섭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 동국대학교와 동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에서 으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전 분야 전공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 Computer & Information Science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박사 △삼성전자 책임

연극학과

이 윤 택
예술대학 연극학과 부교수



동국대 연극학과는 단순한 학과가 아닙니다. 유지진, 이혜랑 선생 등이 가르침을 전한 한국 근대 연극의 정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저같이 학력이 변변찮은 사람이 한국 연극의 본산인 동국대 교수로 부임한다는 것은 대학 사회의 혁명입니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학벌과 불평등이 타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

인 조짐입니다. 또한 제가 교수로 임용된 것은 한국 공연예술계의 '서자가 적자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야 연극인이 정통연극계에 진입한 것이고, 우리 문화의 중심과 변방의 소통, 즉 길트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극 연출 전공 △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 △극단 연희단거리패 우리극연구소 대표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윤 승 현
영상미디어학부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조교수



오랜 역사와 전통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자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의 응용분야인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였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디지털 영상, 컴퓨터 게임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동국의 학생들과 하나 되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여,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항상 배움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학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프로그래밍 전공 △한양대학교 수학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BK21 박사 후 연구원

대학사회의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동국미디어센터(가칭) 미디어 포탈 '동국인' 개설



동국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될 미디어 포탈 '동국인' (<http://www.donggukin.org>) 이 오늘(3일) 오픈했다. 미디어 포탈 '동국인'은 동대신문과 교육방송국, 동국포스트, 동국대학원신문, 출판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동국미디어센터(가칭)로 통합되면서 만든 종합 언론 사이트다. 미디어 포탈 '동국인'은 학내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는 물론 기존의 주간, 월간 등 느린 정보소통구조에서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는 종합미디어 사이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웹 2.0을 기반으로하는 쌍방향 소통구조를 갖춘으로써 정보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정보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를 개척해 나갈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게 된다. 과거의 학내언론이 각각 신문과 방송, 영문 등으로 나뉘어 따로 정보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던 고립적 패턴이었다면, 미디어 포탈 '동국인'은 신문과 방송이 융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종합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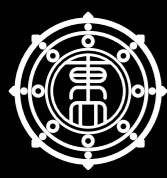
예를 들어 현재 '동국인'의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입 총동창회장의 취임 기사가 실려 있다. 이전의 경우라면 신문과 방송이 각각 취재하고 각자의 매체만을 이용해 보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디어 포탈 '동국인'은 동대신문 기자와 교육방송국 기자가 함께 취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성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학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능을 통해 닫혀있는 학내 소통구조를 열린 구조의 커뮤니티로 바꾸는 기능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오마이뉴스와 같은 시민기자 형식의 객원기자 제도를 활성화시켜 일반 학내구성원들도 언제든지 기사제작과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미디어 구조를 만들었다. 앞으로 미디어 포탈 '동국인'은 열린 미디어, 움직이는 미디어, 미래를 준비하고 동국인을 위한 미디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능을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학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능을 통해 닫혀있는 학내 소통구조를 열린 구조의 커뮤니티로 바꾸는 기능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오마이뉴스와 같은 시민기자 형식의 객원기자 제도를 활성화시켜 일반 학내구성원들도 언제든지 기사제작과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미디어 구조를 만들었다. 앞으로 미디어 포탈 '동국인'은 열린 미디어, 움직이는 미디어, 미래를 준비하고 동국인을 위한 미디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국미디어센터



2007학년도 2학기

<http://edulife.dongguk.edu>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안내

과정명	분야	세부과정명
특별교육과정	경제	부동산 경제, 증권전문가, 부동산재테크, 아트마켓&아트테크, 브라보행복한노후설계
	문화	이벤트기획론, 공연기획론, 드라마코칭
	생활	샵마스터전문가, 인터넷쇼핑몰창업
자격증과정	대평교형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가요전문지도사, 아동미술심리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문지도사
	민간자격	커피전문가, 아로마테라피DIY창업, 한국전통다례지도사, 한자자격시험, 화웨이기능사자격시험, 표현예술치료1단계-6단계, 선요가, 선우도
불교과정	불교전문반	반야사상, 불교교리발달사, 기신론사상, 천대사상 * 5학기 수료 후 총장명의 불교학법사인증서 수여
	불교연구	불교지도자스피치,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전문가
	불교교양	능화스님의 불교의식실용반, 불교무용반, 불교란 무엇인가, 경전연구, 불교한문 참선수행, 불교상당사, 불교정통꽃꽂이, 명상심리치유사, 명상음악치료, 나의 몸에 이로온 참살이음악이야기
교양	동양철학	명리학, 사주심리학, 사주명리전문가, 주역, 기문정명학, 육임, 성명학, 인상과개운, 생활풍수, 현공기풍수인테리어, 벽계풍수, 오색풍수
	문화,예술	가요강좌, 문인화, 사군자, 서예, 전통민화실기, 전통생활자수, 한지화, 고전전통무용, POP(손글씨) 창업반, 데코파주

2007년 8월 1일(수) ~ 9월 7일(금)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02)2260~3728~30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전문가과정』

사찰음식은 '모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생명존중사상(자비사상)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음식'은 단순히 '식(食)'이 아닌 '약(藥)'의 의미로 쓰이며, 이는 먹는 것만으로도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사람의 성품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계절 채소를 사용하고 식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으로 서구화된 식생활과 인스턴트 식품으로부터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음식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사찰음식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강의시간 : 월요일 오후 2시 ~ 5시 / 학수비 : 800,000원
- 선재스님 :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한국전통사찰음식보존회 회장

방송인 이선미의 『불교지도자 스피치과정』

목소리 분석등 기초부터 시작하여 시, 설법, 축사 등의 낭독과 모니터링을 통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포교스피치, 즉흥스피치, 설득스피치, 인터뷰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하여 훌륭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스님과 법사님을 위한과정입니다.

- 강의시간 :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 학수비 : 1,500,000원
- 이선미 : 전 불교방송국 국장, 현 Speech Lab 대표

능화스님의 『불교의식실용반』

불교음악 법패의 사상적 의미와 쓰임연구, 사물다루기(목탁, 요령, 태평, 법고), 예불, 불공의식 (거불, 보소청진언, 유주, 정사), 49개의 의식(시련, 대령, 관유, 시식), 도량장엄(삼민불, 전, 주방공사) 등에 대한 이론과 실례를 통해 사찰의식을 올바르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수료 후 (사)법패와작법무보존회 사법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스님들과 법사님을 위한 과정입니다.

- 강의시간 :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 학수비 : 300,000원

능화스님의 『불교무용과정』

호법의 의미를 갖추는 바라춤, 불법을 상징하는 나비춤,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의 법고춤 등의 동작을 익히도록 지도 있게 연구하면서, 웰빙시대에 정신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과정으로 수료 후 (사)법패와작법무보존회 사법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강의시간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학수비 : 300,000원
- 능화스님 : (사)법패와작법무보존회 이사장, 인선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궁중다례의식보유자 김의정의 『한국전통다례과정』

다례는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며,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종합예술로서 조선시대 마지막 상궁으로부터 '궁중다례'를 직접 전수 받은 전문기관 명원문화재단의 올바른 다례교육을 통해 전통예절 및 현대예절 등을 모두 배우고, 다도의 기본이론과 생활다례를 익혀서 문화센터 및 유·초등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목적입니다. 수료 후 명원 다도·예절지도사(2급)를 수여합니다.

- 강의시간 : 월요일 오전 11시 ~ 12시 50분 / 학수비 : 400,000원
- 김의정 :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장

열린 '민족의식' 가져야 리더국가 된다

지난 8월 17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CERD)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이는 총 27개 항목 중 18개 항목이 한국의 '단일 민족' 강조에 대해 우려 표명과 시정 권고였다.

우리의 보고서에 의한 결론이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단일' 지나친 강조가 문제

단일민족(單一民族)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한 나라의 주민이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일 민족 강조 의식이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오는 폐단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의미는 일본에 의한 강압적인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출발하여 민족분단이라는 극복할 과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단일 민족의식의 긍정적인 영



논단

김중욱
더한림연구소 소장
국사찾기협의회 부회장

향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IMF국면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단결시켜 민족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홀대 말아야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광복할 국력의 신장으로 저 소득국가의 근로자들이 대거 입국하여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결혼하는 사람 중 1/8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경시와 홀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의 일원으

로 책임을 다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입장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할 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첫째, 단일 민족의식의 극복이다. 우리나라말로 국제결혼과 혼혈의 선진국이다. 단군사화에서 보듯이 환인족과 웅족의 일종의 국제결혼과 인도의 아우타 왕국의 공주와 국제결혼을 한 가야국 김수로왕의 예 등이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 즉 사전적 정의의 단일 인종국가가 아닌 것을 증명한다.

둘째, 국제 사회에 리더로서의 야망과 역량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의 지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무역량에 있어서 멕시코를 제외한 38개 중남미 전체 국가와 53개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무역액을 능가하는 입장이니,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리더는 포용하고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국제사회 리더 면모 갖춰야

이만큼 성장했으면 정신적인 면과 법적적인 면에서도 동반 성장하여 리더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원시반본(原始反本)해야 한다. 우리의 건국이념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 이념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공존(共存) 공영(共榮) 공생(共生)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보유하고 있기에, 25시 작가 게오르규 신부가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이념은 '한국이 낳은 홍익인간이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달하나 천강에

거짓말 권하는 사회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

처서인데도 불볕더위가 수그러들 줄을 못른다. 올 여름은 마른장마와 집중호우,

열대야로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들었다. 이 모든 게 기상이변 때문이고, 그것은 자연을 마구 훼손한 우리 잘못이니 수 원수구하리요.

올 여름이 더욱 길고 짜증스럽게 느껴진 것은 여름방학 즈음에 불거진 학력위조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사건으로 우리 동국대학교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모든 동국가족은 죄인처럼 머리를 숙여야 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력 위조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잘못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사건의 여파는 매우 강력하고도 긴 파장을 남기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온 교육계, 문화계 인사들의 학력 위조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차제에 몇몇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학력과 경력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는데,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었으면 한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허세와 거짓을 청산하고 새 정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번 사태의 주동자 가운데 대학 교수나 성직자가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학생과 신도 앞에서 울바르고 참된 삶을 살라고 사자후를 도왔을 그들이 실제로는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는 아이러니야말로 우리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이다. 우리는 외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언제부턴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능력보다 학력과 학벌을 더 존중하는 기이한 풍습에 감염되어 있

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공통된 변명은 주위의 유혹과 거짓말에 끌려 다녔다는 고백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는 화제거리도 못된다. 최고 교육기관에서도 학력 위조를 은근히 방조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지도자 과정'이니 '연구 과정'이니 하는 애매한 제도를 만들어 '장사'를 하고 '동문' 대우를 하다가 사건이 터지거나 몰라라 한 주제가 바로 각 대학이다. 교육보다 경영에 더 큰 관심을 쏟는 일부 대학에선 이번 사건으로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할지도 모를 일이다.

흔전건은 1920년대 우리 현실을 '술 권하는 사회'로 풍자한 바 있다.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한다. 그 중심에 대학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 위한 사교육 붐이 몰아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 울여름 폭염도 곧 기세가 꺾이겠지만, 우리 사회의 거짓과 허세는 되레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절로 땀이 흐른다.

사설

신정아 사건, 정치적 이용을 경계한다

우리학교 교양교육원 교수이자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던 신정아 씨가 미국에서 받았던 학위가 가짜임이 들통 나면서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씨의 학력위조사건과 관련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조사를 한 결과 "홍기삼 전 총장과 관련처장이 업무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교수초빙에 필요한 서류를 미비상태로 방치한 행정적 과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정아 씨를 파면시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체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우리학교의 학위검증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신정아 사건 이후에도 단국대 등 다른 대학 교수들의 가짜 학위가 발각됐다. 이렇듯 다른 대학들의 학위검증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신정아 전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부실한 학위검증시스템이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또한 관계자들의 미숙한 행정업무처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학교본부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력을 검증기로 결정했다. 한편 능력보다 학력이 중시되는 대학가의 교수인용관행을 깨뜨리고 연극학과에 실무능력이 검증된 이윤택 연출가를 교수로 임용하는 파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늦었지만 학교 내에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언론에서 신정아 사건에 대한 이상한 기류가 보인다. 청와대의 변양군 정책실장과 장윤스님이 두 차례 만났는데 이 자리를 갖고 언론에서는 변 실장이 장윤스님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들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검찰이 신정아 전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변양군 실장의 외압의혹을 비롯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러나 대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갖고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잘못됐다고 본다. 특히 몇몇 언론들이 신정아 전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우리학교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구성원들 모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이윤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보리소

자발적 고백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생사를 거는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리다보니, 어느 겨를에 오직 승자만이 선이요 능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하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보다 그가 얼마나 상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되면서 자신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법이나 양심 같은 것에 구애받을 것 없이 자기를 잘 포장하여 자신의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능력이란 것처럼 왜곡되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하는 것을 자기실현의 삶처럼 곡해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욕망을 억제하는 금기가 결여된 사회, 도덕과 양심이 부재한 사회, 죄의식이 병든 사회에 살고 있다.

만약 자기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대 포장하는 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은 위선과 사기술에 지나지 않고, 남의 피해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실현이라면 자기실현은 결국 자기 파괴를 넘어 사회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기에 의한 능력과 파괴적 자기실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덕질서를 세우는 것이 종교의 한 기능이라면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종교마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고, 양심이나 도덕이 무너지면 법이라도 준엄한 잣대로 살아 있어야 할 터인데 그마저도 불신과 의혹으로 도전받고 있으니 걱정이다.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의 준거처럼 인식되어 평가의 잣대가 되어왔던 학력이 거짓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탄로 나기 시작한 것이 동국대의 신모교수 사건이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진 비양심의 병리적 현상이 남들의 들뜸과 까발림이 아닌 자발적 고백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

성열
감남포교원장



독자 사진첩

터키 에페스 원형극장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포효소리가 하늘을 울린다.

김나영(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메아리

또다른 피노키오

▲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져요. 그러니 나쁜 아이예요. 착한 아이는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잘 가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읽어봤을 동화 피노키오. 이 동화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교훈을 줬다. 그러나 이 동화를 읽은 후에도 우리는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 역시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인 것이다.

▲ 허위학력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진실을 추구하는 본연의 역할대로 언론들은 연일 학력위조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학력위조와 관련된 유명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매도해버리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인기강사를 보도하기 전, 그녀가 방송에서 자신의 짧은 가방 끈을 밝혔음을 확인했어야 했다. "다지지는 않았지만 합격은 했었다"고 말한 텔런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 전에 합격자 명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리 아니었을까?

▲ 물론 행복을 전도하던 인기 강사도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유명 텔런트도 그들의 거짓말을 용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이 진실을 밝혀내는 가운데 언론은 특종을 위해

서 또 다른 피노키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학력을 속이게 됐는지, 또는 자신이 왜 오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봤자 비겁한 변명이 되어버리고, 진실한 반성이 거짓말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귀가 잘못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 우리 사회의 피노키오들은 '학력위조 사회'라는 여우와 고양이 의 유혹에 빠져 거짓말을 했다. 코는 점점 길어졌고, 스스로도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거짓말을 멈추게 할 요청도, 잘못을 반성하게 해줄 제페도 할아버지도 없었다. 이미 거짓말은 밝혀졌지만 우리는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피노키오의 말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 선담은 대학부장 ssundam@dongguk.edu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원향
월	육개장 (2000) 치킨볶음밥 (2000) 치즈돈가스 (2500)	두부김치백반 (1800) 불고기덮밥 (2200) 독배기치즈불닭 (2500)	치킨가스정식 (2900) 전주식비빔밥 (2500) 원장개개공차우조림 (3500)
화	치킨가스 (2500) 제육비빔밥 (2000) 오징어덮밥 (2000)	우영닭조림백반 (1800) 오삼불고기덮밥 (2200) 순두부찌개 (2500)	오우라이이스정식 (2900) 오징어떡볶음덮밥 (2500) 알밥 (3500)
수	쇠고기국밥 (2000) 참치김치볶음밥 (2000) 수제돈가스 (3000)	어묵매추리얼조림백반 (1800) 치킨굴스스탕밥 (2200) 갈비탕 (3000)	찰판제육볶음 (2900) 카레라이스 (2500) 영양밥 (3500)
목	설렁탕 (2000) 닭갈비볶음 (2000) 새우가스 (2500)	삼치구이백반 (2000) 해물덮밥 (2200) 날치알술밥 (25000)	베이컨김치볶음밥 (2900) 떡만두국 (2500) 일식돈가스 (3500)
금	짬뽕수제비 (2000) 돈육계란정조림 (2000) 참박스테이크 (2500)	비엔나볶음백반 (1800) 제육덮밥 (2200) 육개장 (2500)	생이채불고기비빔밥 (2900) 순두부찌개 (2500) 닭백숙 (3500)

수강신청 변천사

돌고 도는 수강별곡

새 학기가 시작되는 문 앞에서 매년 대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문지가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수강신청! 항상 피 말리는 경쟁순간인 수강신청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이 어디 있으랴. 같은 장소 다른 시대에 존재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수강신청 풍속도'를 함께 들여다보자.

무조건 수작업! - 6, 70년대

학교에서 만들어 주는 시간표를 따르지 않았을까 추측했던 예전의 동아에도 수강신청은 진행됐다. 당시에는 A4용지 사이즈의 수강신청 카드에 시간표를 잔 대로 손수 적어서 제출했다. 학생들의 제출이 끝나면 수업은 맡은 교수에게 수강신청 한 학생들의 명단이 접수됐다. 그것으로 직접 출석부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때는 수강신청이 개강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개강 후 한 달 동안은 등록, 수강신청, 수강정정 등으로 거의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산화 시대의 시작 - 80년대

아직까지 손으로 적어내는 수강신청 방법

을 사용했지만 전산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수강신청이 끝나면 전산 처리 돼 출석부가 자동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시간표는 전공수업이었기 때문에 교양과목 선택에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인기가 많으면 분반하거나 큰 강의실로 이동해 수업을 못 들어 아쉬울 일이 없었다고.

이시대의 묘미는 듣고 싶은 수업이 한 시간 정도 걸려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수작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해 수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때때로 수업마다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다 교수님께 '찍히면' 학점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다.

비장의 카드, OMR - 90년대

수작업 수강신청은 가고 비장의 OMR 카드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수강신청까지 이루어져 온전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2주가량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강신청 할 때 최소화된 신청제한이 없어 체강을 하지 않고 OMR 카드를 제출하고 정정기간에 신청 해 2주 동안 '땡땡이'를 치는 것도 학기

초의 묘미였다. 하지만 학과당 정원이 적었던 때라 이를 전공수업에까지 적용할 시에는 교수님의 눈 밖에 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학기 초 신나게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OMR카드에 표기를 잘못해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럴 때는 수강정정 기간에 신청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제 3의 물결! PC - 1997년

1997년 1학기 개강 초 동아에는 새로운 바람이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PC이용 수강신청'. 종전의 OMR 카드 사용 시 있었던 혼란을 없애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1997년 1학기 수강 정정부터 학교 내 9개 실습실에 있는 450여대의 컴퓨터로 첫 PC 수강신청을 시작했다. 시행 첫날엔 컴퓨터를 가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컴퓨터가 다운되기도 해 기다리는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PC를 이용한 수강신청으로 전환이 되며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강좌마다 수강인원 제한을 한 것과 그에 따른 수강신청 선착순 마감이다. 첫 번째 수강신청이 끝난 후 학생들의 반응은 "조작이 쉽고 OMR 카드보다 간편하다"와 "수강인원 제한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없다"로 나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강신청 전쟁의 전조전이 아니었나

싶다.

구시대적 수강신청 - 2000년대

인터넷이 집집마다 보급된 지금 컴퓨터를 다루는 세대에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스피드'다. 하지만 대부분 보통 사양의 컴퓨터와 함께한 이들은 비좁은 로그인의 관문을 뚫어내느라 진땀 흘린다. 더욱이 교양수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수강신청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수강신청의 아픈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비교해 우리는 10년 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원망 또한 매 학기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됐다.

웹으로 향하는 우리 - 2008년

내년부터는 학교가 추진하는 정보전략 계획에 따라 대우정보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웹수강신청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면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고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방화벽 제거를 하는 등의 귀찮은 일도 없다. 학교는 IBM의 서버 중 최상위에 속하는 P595를 구축하고 서버를 이중화한다니 서버가 다운돼 수강신청이 중단되는 걱정은 덜었다. 새로운 수강신청의 풍경이 생겨나길 기대해 보자.

문서명 기자 syooh@dongguk.edu

일러스트 = 안성훈 객원기자

수강신청 에피소드

수강신청 달이 되는 2날까지!



나만의 착각

왜 수강신청 시간을 9시부터로 알았을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수강신청 시간은 당연히 9시라고 여기고 넘겨버렸습니다. '안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한 전 여유롭게 9시에 맞춰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접속후, 제가 들어야할 과목의 정원여부는 모두 0, 0, 0. 나중에서야 수강 신청 시간이 8시 반이었다는 걸 알았죠. '수강신청, 니가 댕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이승호(정신대 컴공4)

내가 학부생이었을 때는

제가 수강신청할 때만 해도 학생들이 학교 서버로 접속하면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친구들끼리 모여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다가 수강신청을 하는 풍경이 벌어지곤 했죠. 그 결과는 참패. 한참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보다 집이나 PC방이 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학교에서 함께 수강 신청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화진(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복학생의 비애

저는 복학한 2학년입니다. 수강신청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선택한 수업을 오른쪽 창에 드래그해야 하는데 계속 수업시간표 있는 곳, 왼쪽에다 해버린 거죠. 계속 드래그를 했는데도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어러났는 줄 알고 조금 하게 피시방 뛰어가서 똑같이 왼쪽에다 드래그를 했습니다.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결국 피시방에서도 못하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출처=디시인사이드

사라진 과목들

집에서 수강신청을 하다가 서버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중요한 전공만이라도 신청하려고 친구에게 대신 수강신청을 부탁했죠.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친구가 대신 신청 했다면 내용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보니 최소화된 12학년 이하로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수강신청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종료하기 전에 뜬 '경고' 창을 못보고 넘겨버린 친구. 이건 너무 심하잖아.

임예빛나(경영대 경영2)



정리 = 이슬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동국의 「3대특성화」 교육 이미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21세기 핵심분야 - 정보·나노/생명공학/문화콘텐츠. 동국대학교는 이 3개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이미 탁월한 인재들을 키워내며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특성화대학을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동국에서 글로벌 리더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CT특성화교육

문화콘텐츠분야의 세계리더로 키웁니다. 영성(문화미디어대학(CT관련 5개학과) + 영성대학원 + 영성문화콘텐츠연구원) 중무로영상클러스터 구축

BT특성화교육

생명공학분야의 세계리더로 키웁니다. 바이오 대학(BT 관련 7개학과) + 대학원(BT학부) + 생명과학연구원 양·한방 협진 동국대 일산병원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IT/NT특성화교육

정보·나노분야의 세계리더로 키웁니다. 정보나노대학(IT/NT관련 7개학과) + 대학원(IT/NT학부) + 정보나노기술원 도심형 산업(IT/NT) 클러스터 구축

세계명문대학을 만드는 108 프로젝트!

경영, 교육, 연구, 환경, 재정, 의학, 병원 등의 혁신을 위한 108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가깝게는 4년 이내 5개 분야 국내최고, 3개분야 세계 최고 대학, 나아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웅비합니다.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0%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사이트 http://www.dongguk.edu http://www.uway.com http://applybank.jinhak.com
■ 접수일정 (서울캠퍼스) 2007.9.7(금)10:00~9.11(월) 17:00까지 (경주캠퍼스) 2007.9.7(금)09:00~9.14(일) 17:00까지
【문의】 (서울캠퍼스 입학관리팀) 02)2260-8861~4 http://ipsi.dongguk.edu (경주캠퍼스 입학관리팀) 054)770-2031~4 http://ipsi.dongguk.ac.kr

2007 대학생 헤이그 특사단 탐방기-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길'에서 '그날'을 기억하다

세계 곳곳 항일유적지 탐방 ... 부실한 유적관리 아쉬워

동대신문사는 지난 방학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독립투사들의 열이 서린 헤이그 특사단 탐방 취재를 했다. 그리고 고구려유적 탐방과 러시아 항일유적지 탐방 취재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생생한 현지 취재 결과를 2회에 걸쳐 나누어 실는다.

편집자



① 제 2회 세계평화회의가 열린 비네흐프 ② 하얼빈의 731부대 유적지 내 희생자 추모비 ③ 우스리스크의 최재명 선생 두 번째 거주지 ④ 1963년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 이준 열사의 묘지

또한, 많은 볼거리를 지닌 도시이지만 우리에게 더욱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시이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당, 하얼빈역 탑승구는 그저 '이토히로부미 저격'이라는 메마른 상식으로 존재하던 안중근 의사를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게 했다.

하얼빈역 승차장에는 안중근 의사의 위치는 세모, 이토히로부미의 위치는 마름모로 바닥에 표시되었지만 안내표지 하나 없었다. 이는 중국정부가 정책상황에 따라 안내판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고 바닥의 표지 또한 없었다 다시 만든 것이라 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모양다른 타일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역사의 현장인 그곳에서 그 때 당시를 재현해 보기도 하고 차례차례 표시를 밟아보기도 했다.

하얼빈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731부대. 1939년 이시이 시로가 창설한 생화학 실험기지인 731부대는 생체실험을 한다는 핑계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일본 패망 후 731부대원들이 건물을 모두 폭발시키고 도망쳐 장교기숙사만 남아 그 시대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가이드 이상빈씨는 "이 곳에 들르고 나면 항상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 주위 아파트들은 하얼빈 시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이라고 귀띔해주기도 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네덜란드 헤이그

여러 독립운동 유적지를 거쳐 가며 마음아파하기도, 즐거워하기도 하던 우리는 12일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길고 지루한 이동시간의 피로를 털고 다음날 헤이그에서 진행된 일정의 시작은 대학생 헤이그 특사단 대표로 참여하게 된 '헤이그 특사 100주년 국제학술회의'였다.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학술회의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발제뿐만 아니라 외국 학자들의 발제도 있어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 이준 기념관의 이기향, 송창주 관장의 발제가 잊혀지지 않는다. 이들 부부가 준비한 헤이그 특사 자료집은 두 사람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였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두 분께 정말 감사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에는 헤이그 특사단이 투숙했고 이준 열사가 순국한 옛 드용호텔, 지금의 이준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헤이그 시내를 걸어 헤이그 특사가 도착했던 제2회 세계평화회의의 개최 장소인 비네흐프 왕궁으로 향했다. 비네흐프를 바라보니 헤이그 특사 3인이 절망하는 모습과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 이준, 이상설, 이우준 세 명의 특사가 헤이그에 첫 발을 내딛은 덴 하의 HS역

또 계속 시내를 걸어 특사단이 도착했던 역인 헤이그 덴하의 HS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속소로 돌아온 우리는 가까운 카페에서 헤이그 특사 3인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기자회견을 다시 재현하기도 하고 정의와 힘에 대한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 기념행사와 사람들

7월 14일. 이날은 1907년 이준 열사가 순국한 날이고 2007년 이준 열사의 순국을 기리며 헤이그 특사 파견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날이다. 뿐만 아니라 헤이그시에서 이들을 기려 '평화의 날'로 지정한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헤이그 특사 파견 100주년 기념식은 이준 열사 기념관 주위에 위치한 뉴케르크 교회에서 열렸다. 많은 인사와 교민들이 참

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 비둘기 날리기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은 둘러 앉아 제공된 간식을 나눠먹으며 서로 이렇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교회 안팎의 풍경에 맑은 날씨와 어울리는 맑은 웃음들이 흩날려지고 있었다. 100년 전 그들이 없었더라면, 암담한 현실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열들이 없었더라면 볼 수 없었을 장면일 것이다. 이 맑은 웃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다시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년의 길 위에 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 =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